

고려와 요금의 외교관계: 조공책봉관계를 중심으로

이석현

I. 머리말

- * 10세기 건국한 고려가 직면한 국제관계의 현실은 다면적이며 유동적 -> 후당, 후진, 후주, 송, 거란, 금, 몽고와 책봉관계 수립
- * 고려와 다른 한 왕조와의 관계를 보기보다는 동아시아 전체와의 관계를 보면서 고려의 대외관계사를 연구해야 함
- * 특히 요금교체기가 고려에 매우 중요했다는 의미에서 요금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함
- * 요금을 동시에 봄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조공책봉관계의 성격과 차이를 알아보며, 동시에 조공책봉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을 본아야 함

II. 고려와 요의 갈등과 조공책봉관계

1. 고려초기의 외교와 거란관계

- * 고려와 중원 왕조와의 관계는 고려 태조 계사 16년에 시작(933년)
- * 후당 왕조는 왕경과 양소엽 등을 보내서 태조를 책봉
- * 이어서 고려의 왕은 후진, 후주로부터 책봉을 받음
- * 이어서 송이 등장한 이후도 책봉관계가 지속되어 963년부터 송의 연호를 사용하고, 976년에는 경종이 송의 책봉을 받음
- * 고려와 거란 관계의 시작은 태조 9년 915년 고려 태조가 거란에 사신을 보낸 것에서 시작; 922년에 거란에 來貢; 그러나 942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거란과 국교단절(만부교 사건)
- * 이후 중원에서 송과 요와의 대립으로 고려-요 관계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당분간 발생하지 않음

2. 제1차 여요전쟁과 책봉관계의 수립

* 한동안 소강상태 이후 요나라 성종은 소항덕을 통해서 고려 공격; 서희의 외교력에 의해 요의 정삭(正朔)을 받아들이고 고구려의 계승권을 받으며 강동6주를 회복함

* 요는 장차 송과의 전쟁에서 후방의 우려를 줄이고 고려의 북진정책을 무마할 목적으로 고려를 공격

* 고려는 이후 송에게 사신 원옥을 보내 협정의 연유를 해명하고 송과 연맹을 요청하지만 송이 거절하여 이후 관계가 단절됨

-> 연송공료 정책포기하고 요와 조공관계 수립

-> 994년부터 요의 통화라는 연호 사용

-> 요는 996년 사신을 보내 고려 성종을 고려국왕으로 책봉

-> 요와 거래가 빈번해짐

-> 송과의 기존의 조공책봉관계 단절 -> 외교관계 단절

* 이후 고려와 요 간에는 조문단 파견, 전연의 맹에 대한 요의 고려에 대한 통지 등 긴밀한 관계가 유지됨

*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트고자 하나 요와 대립중인 송은 고려가 요구한 관계강화보다는 고려를 위무하는 수준에 그침

* 중국의 국제관계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중원원조와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하던 한반도의 왕조가 고려에 이르러 요와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임 -> 냉엄한 국제관계의 반영

3. 제2, 3차 여요전쟁과 조공책봉

* 강조의 정변과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함; 현종은 이러한 고려의 정황을 요에 설명함

* 그러나 고려 하공진의 여진인 주살을 계기로 여진이 요에 고려 징벌을 호소하자 요의 성종은 고려 징벌의 계획함

* 강조의 정변과 여진인 주살을 명분으로 1009년 고려 성종이 직접 40만 군을 이끌고 고려 침공

* 요는 강조를 사로잡고 고려왕의 친조를 약속받고 물러가는 등 별 성과가 없었음; 요는 고려가 압록강 일대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송과 내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침략함

* 이후 현종은 거란에 대한 화공양면정책 구사: 축성 등과 함께 다수 부서의 시랑을 요에 파견하여 감사 표시

* 그러나 요는 지속적으로 고려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면서 견제함 -> 하공진 살해, 고려사신 김은부를 납치 후 석방

* 요는 2012년 현종의 친조를 요구하자 고려는 이를 회피하였고, 이에 요는 강동6주의 반환을 요구한 후 이 지역을 조사해 감; 고려는 요를 회유하려 하지만 요는 상당히 완강한 반응을 보임 -> 양국 간 긴장관계의 전개

* 2012년 5월 요는 통화에서 개태로 연호변경을 통보해 왔고, 고려는 요의 정삭을 유지하여 양국관계가 파국인 것은 아닌 복잡한 관계의 양상이 드러남

* 2014년 고려는 송에 사신 윤징고를 파견하여 송과 예전의 동맹관계를 회복하려 하지만 전연의 맹 하에서 송은 고려의 이러한 요청을 정중히 거절함 -> 송으로서는 전연의 맹을 통한 요와의 100년 평화관계를 고려로 인해 훼손시키지 않으려 하고, 요는 송과의 관계가 평화관계로 접어들면서 다시 고려를 손볼 여유가 생김

* 1014년 요의 제3차 고려 침공 -> 소적렬과 야율단석의 침략에 대한 고려의 완강한 저항, 그리고 아율자충의 강동6주 반환요구에 대해 고려는 야율자충 인질로 잡는 대응

* 1015년 요의 제4차 고려침공 -> 야율자충 인질에 대한 요의 징벌; 고려는 송에 원군 요청하지만 송은 전연의 맹약에 의거 이를 거절함

* 1016년 고려의 강경대응 -> 고려는 요의 사신을 거부하고 요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음 -> 거란과의 책봉관계 종식

* 1018년 고려는 송의 천희 연호 다시 사용 -> 거란에 대항하면서 송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

* 요는 1017, 1018 각각 소합탁, 소배압 등으로 고려 공격하지만 고려는 강감찬 등의 군사적 방어와 서희 등의 외교노력으로 방어; 이후 1018년 12월 공격도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요는 패배

* 1019년(?) 전쟁에 지친 양국은 다시 외교사절 교환을 통해 조공책봉관계로 복귀 -> 현종의 외교관계 수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작용함 -> (1021년?) 이후 빠른 속도로 양국은 사신을 교환하는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면서 요의 연호를 다시 사용함; 동시에 현종은 송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유지하려 함

4. 대연림의 반란 이후의 외교적 갈등

* 대조영의 7세손이 대연림이 요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고려에 지원을 요청하자 현종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요와 고려는 일시 외교적 통로가 단절됨

* 현종 이후 등극한 덕종이 압록강 주변 영토와 관련된 요구를 요에 제기하자 요가 이를 거부하면서 고려 덕종과 요의 흥종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책봉관계가 중지됨

* 덕종은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요와의 대결을 대비함

* 덕종을 뒤를 이은 정종은 요의 요청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1037년 흥종의 重熙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다시 외교관계 수립 -> 요의 멸망시기까지 지속됨

* 이후 문종 때에 송과의 복교 움직임이 있었으나 요를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신하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지 않음

III. 요금교체기 고려의 외교적 대응

1. 금의 흥기와 고려의 대책

* 고려 숙종기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던 여진의 완안부가 득세함

* 예종시 윤관이 여진 정벌에 나서 9성을 쌓음(9성의 역)

* 예종은 이어 여진의 요청으로 9성을 다시 여진에 돌려줌

* 우야소 이후 아골타가 등장하면서 여진은 더욱 강해져서 1115년 국호를 금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황제라 부르면서 요를 공격함

* 고려는 요가 금에 침공으로 인해 급속히 쇠퇴하자 요와의 공식적 외교관계에 종말을 고했음

* 고려는 금이 요를 공격하는 사이 요의 내원성과 포주성을 요로부터 고려의 영토로 편입시킴 -> 요금교체기 실리외교의 승리

2. 금의 사대 요구와 고려의 대응

* 예종 당시 금이 형으로서 고려를 동생으로 삼아 형제관계를 맺자는 것에 대해서 고려는 분개함

* 이후 금은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 고려를 제후로 보는 것으로 시사하기도 했다

* 고려와 금의 관계는 요가 망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양해된 관계 없이 긴장 속에서 유지됨

* 예종의 뒤를 이어 인종이 등극하고 금은 태조에 이어 태종이 등극함; 인종은 금을 혐오했으나 금의 태종은 요의 멸망에 진력하여 고려의 적대적 태도에도 고려를 자극하지 않음

* 1123년 요가 기율자 송은 고려가 자신의 책봉을 받을 것을 권하나 고려는 금의 등장을 고려에 둔 듯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를 거부함

IV. 고려와 금의 조공책봉관계의 성립과 성격

1. 고려의 금에 대한 稱扈문제와 책봉

* 1125년 요가 멸망한 후 송금 간에 고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함

* 송 휘종 1125년 요가 멸망한 후 송이 요멸망을 위해 체결한 맹약을 지키지 않자 금이 요를 공격함 -> 송 흠종의 즉위

* 어린 인종은 장인인 이자겸의 뜻에 따라 금의 신하지위 요구를 따르기로 함 -> 이는 사실상 금이 북송을 멸망시키는 시점, 즉 금이 강대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임

* 1126년 고려는 사신을 금에 파견하여 신하의 지위를 받아들이겠다고 알림 -> 실제 조공책봉관계는 1142년에 수립

* 중원의 대세가 금으로 기울어가자 고려는 송의 원군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함

* 금은 이후 고려에 책봉관계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양국 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금이 보주 영유권 문제와 금인의 귀화호구 귀환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됨

* 송은 금에 포로가 된 휘종과 흠종을 찾기 위해 고려에게 假道를 요청하나 고려는 이를 자국의 사정을 들어 완곡히 거부하고 송은 이를 양해함

* 1142년 금은 송과 소흥화약을 통해 관계가 안정화되자 인종을 책봉하면서 조공책봉관계를 맺음

* 고려는 송과 금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

2. 무인정권기 고려와 금의 관계와 책봉문제

* 인종 이후 의종 연간에 무신의 난이 발생하여 명종이 즉위하자 강조의 정변에 의해서 목종 이후 현종이 즉위한 후 요가 시비를 건 것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됨

* 금의 세종은 완안정을 파견하여 양위의 내막을 조사하면서 명종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종을 오히려 위로하는 서신을 명종에게 보냄

* 1172년 명종이 책봉됨

* 금은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려 하지 않고 체면이 유지되는 선에서 고려 왕위의 계승을 인정함

* 이후 최충헌에 의해서 신종이 즉위하자 금의 장종은 손우를 보내 내막을 조사하게 한 후 1199년 신종을 책봉함

* 이후 희종이 집권한 후 최충헌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폐위되고 명종의 태자인 강종이 즉위하자 금은 강종을 책봉함

* 이후 고종이 즉위하였으나 이미 금이 북방에서 몽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여 고려는 금에 책봉을 요구하지 않음

* 포선만노의 난 때 금이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중원의 정세변화를 감지한 고려는 이에 응하지 않음

V. 맺음말(에 대신하여)

1. 요와의 관계

* 고려는 요와의 관계 수립 이후에도 꾸준히 송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면서 요를 견제하려 했으나 송은 자신의 사정 탓으로 이러한 고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함

* 요는 고려의 세력이 강해지고 송과 내통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침략 등을 통해서 고려를 견제함 -> 장차 송과의 전쟁에서 후고지우, 후방의 걱정을 덜려고 노력하면서 고려의 북방진출을 좌절시키려 함

* 고려는 요와 전쟁 이후 다시 조공책봉관계를 회복하고 요의 연호를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송과의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함

* 고려의 요에 대한 태도는 요를 인정하여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국력을 소모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, 따라서 요와 조공책봉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송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함

* 요는 고려를 통제하여 대송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려를 침략하였고, 전연의 맹 이후 송과의 관계가 안정되자 또한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침략하였다.

* 송은 요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가 외교관계 회복을 요청해 와도 이를 거부하였고 요의 힘이 약해지자 고려와의 외교관계회복을 시도함

2. 금과의 관계

- * 요가 약화되자 고려는 요와의 관계를 바로 단절할 정도로 요와의 관계는 편의에 의한 것이었음
- * 금이 칭신을 요구해 왔지만 신하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굴욕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금과 송 사이에서 신중하던 고려는 인종 때에 금이 북송을 점령하자 신하의 지위를 받아들임
- * 고려는 중원이 금송 간 power transition에 따라서 외교관계를 설정함: 예) 송에 원병을 보낼 것인가? 금에 신하지위로 귀속할 것인가 등
- * 금이 중원의 주인이 된 이후 고려는 무신정변 이후 왕이 바뀔 때마다 금에 책봉을 요구하여 금의 인정을 받았음
- * 그러나 금이 약해지면서 북방에서 몽골의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 거란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고려는 책봉을 요구하지 않고 금의 지원요구에도 등하지 않음